환경교육과 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적용한 온라인 환경교육의 인식 및 전략 연구

이혜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조재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Introduction

온라인 환경교육은 모든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자체로 이미 미디어를 통한 환경의 재현이자 환경 메시지 생산으로 볼 수 있음.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교육에 환경교육과 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탐색적 연구로, 총 12명의 전문가(환경교육: 6명, 환경커뮤니케이션: 6명)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통해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음

연구문제 1. 환경교육·환경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온라인 환경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2. 환경교육·환경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온라인 환경교육에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가?

Method

심층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코딩 지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최상위 범주를 도출하였음

온라인 환경교육의 인식·전략에 관한 최상위 범주

- 온라인 환경교육 인식: 미디어·환경주제·기능
- 온라인-오프라인 환경교육 간의 관계
- 온라인 환경교육에 관한 부정적 요인
- 복합적 역량 기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온라인 환경교육의 주의사항과 한계점
-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고려

온라인 환경교육의 인식·전략에 관한 상위 범주 사례

- 미디어와 관련이 있거나 활용하는 환경교육
- 온라인 환경교육의 파편화, 분절, 충돌
- 교수자-학습자 간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 교육 프로그램 및 메시지의 정형화
- 온라인 환경교육 플랫폼의 필요성

온라인 환경교육의 인식·전략에 관한 하위 범주 사례

- 미디어나 기술을 활용한 환경교육
- 환경 관련 주제의 다차원적 접근 가능
- 온라인 환경교육에 관한 노하우 부족
- 상호작용 및 쌍방향 참여 유도 필요
- 국가 차원의 지원 부재

Results

온라인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목표를 추구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육

주요 전략 교수자-학습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실생활·행동 실천·인식 변화와의 연계성, 학습자 참여, 교수자의 변화 수용,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기존 교육 연계 기존 교육의 기계적 전환이나 모방이 아닌,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과 학습자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변형과 응용 필요

관련 지원 필요 온라인 환경교육의 유용성이나 용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 교수법,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대상을 확장해야 하거나 접근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좀.. 간편함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접근했던 게 있는 거 같아요, 환경교육 쪽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어려서부터 미디어나 온라인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상태로 성장**하는, 대상의 특징이 달라진, 세대에 맞는 교육의 방법으로, 그 전에는 한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예를 든다면 지금은 **어쩌면 전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온라인 환경교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환경교육 R-2

"기기들과 뭐 이런 걸 잘 써서 오프라인 교육이랑 유사한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온라인은 굉장히 다르잖습니까?** 정서적으로 좀 다르고 또 아이들은 사실은 이 온라인 교육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해요. 하나도 낯설지 않고 이게 더 편한,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 보고 있으면 한 마디도 안 할 애가, 온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채팅을 하든 말을 하든." - 환경교육 R-3

"환경지식, 정보에 관한 교육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진, 교육을 위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양성 과정을 하더라도 대부분, 정보 나열이 된, 그런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교육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랬는데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교육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주 부족**하죠." - 환경교육 F-1

이혜선 | hsle@sogang.ac.kr

- 숲과나눔 제4기 특정주제연구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 이 연구는 2021년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특정주제연구)의 지원을 받았으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9권 1호에 게재되었습니다.